

## 벤처기업 확인제 2005년 폐지

벤처기업 확인제가 오는 2005년 종료되고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등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자율과 경쟁에 바탕을 둔 간접지원제도로 전환된다.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10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업무계획에 따르면 중기특위는 그동안 정부가 벤처기업을 선별해 직접 지원해 온 벤처확인제도는 오는 2007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벤처확인 유효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 2005년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 또 시장 중심의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캐피탈의 기업 선별능력을 높이고 벤처 M&A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반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시행해 온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를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지정계열화 업종을 대기업·중소기업간 자율적 협력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밖에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청의 합동조사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상품목을 축소,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 연기금 벤처투자 활성화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연기금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해 시장안정성을 높이고 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위해 관련법령과 세제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정보기술(IT) 산업정책과 관련해 “I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벤처확인제도를 조기에 종료하고, 민간 벤처업계 지원을 위해 제도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중국의 시장잠식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위를 점하는 IT, 생명기술(BI) 등 전략적 고부가가치 산업의 집중육성이 중요하다”고 향후 산업정책방향을 설명했다.

## 중기청, 해외진출 벤처기업 모집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벤처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원센터 사업자와 벤처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해외에 사무실과 인력등을 갖춘 협회, 컨설팅사, 벤처캐피탈 등 민간 전문기관을 벤처 해외지원센터로 선정,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벤처 해외지원센터는 3000만원의 기본 운영비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벤처기업은 센터로부터 시장 정보, 현지법인 설립 컨설팅, 공동 마케팅 등의 지원과 박람회 참가비 등 해외 진출에 소요되는 자금을 2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지원센터 희망 사업자는 오는 16~26일, 해외진출 희망 벤처기업은 오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각각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 “우수벤처 집중 지원” .. 陳장관, IT기업 간담회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은 지난 11일 대전시 유성에 있는 대덕밸리를 방문, 벤처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진장관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IT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우수 벤처를 집중 지원해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기업간 협업시스템 구축에도 적극 나서 벤처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 ☞ 산업동향 ...



### 벤처기업 갈수록 줄어든다

올들어 벤처기업 감소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총 8533개사로 전월에 비해 157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감소세는 지난 1월 11개사, 2월 7개사보다 늘어난 것으로 벤처 신규 지정 및 재지정된 업체가 전월에 비해 다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 만료로 벤처기업에서 제외된 업체가 크게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달 신규로 지정된 업체는 69개사, 재지정된 업체는 240개사로 전월 신규 지정 54개사, 재지정 211개사에 비해 모두 증가했다.

반면 유효기간 만료로 벤처기업에서 제외된 업체는 461개사로 전월 337개사에 비해 크게 늘었으며 휴폐업 및 요건 미비로 지정 취소된 업체가 5개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신기술기업이 6019개로 전체의 70.5%를 차지했고 벤처투자기업 1107개(13.0%), 연구개발기업 1407개(16.5%)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5585개(65.5%), 정보처리 소프트웨어 2221개(26.0%), 연구개발서비스 303개(3.6%), 건설·운수 165개(1.9%), 도소매업 136개(1.6%), 농업·임업·광업 20개(0.2%) 순으로 집계됐다.

#### ☞ 업계동향 ...



### 〈BT〉 인간게놈지도 완성했다

인간게놈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과학자들이 인간생명의 유전적 청사진인 인간게놈지도를 사실상 완성했다고 BBC 인터넷판이 14일 보도했다.

약 3년 전 인간게놈지도 초안을 작성, 세계를 놀라게 한 인간게놈프로젝트 과학자들은 이날 인간게놈의 염기서열을 100% 해독한 게놈지도 완성분을 예정보다 2년 빨리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 등 6개국 국제컨소시엄인 인간게놈프로젝트(HGP)의 과학자들은 3년 전인 2000년 6월에 인간게놈지도의 97%까지 완성한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염기서열 해독작업의 3분의 1을 실시한 영국 웰컴트러스트 생거연구소의 앨런 브래들리 교수는 “인간게놈지도를 완성함으로써 얻는 의학적 혜택은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염색체 20의 염기서열 해독은 당뇨병, 백혈병, 어린이 습진 등 질병과 연관된 유전자를 찾는 연구를 가속화시켰다고 브래들리 교수는 설명했다.

#### ☞ 기술동향 ...



### 세계수준의 실리콘소자분석 개발

실리콘계 반도체 소자의 극박막 조성과 화학 상태 등의 초정밀 측정이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분석기술이 국내 연구진의 의해 개발됐다. 이에 따라 반도체·신소재·나노기술(NT) 등 초고정밀도가 요구되는 국내 하이테크 분야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과기부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중 ‘테라급나노소자개발사업단(단장 이조원)의 과제를 수행중인 연세대 초미세표면과학연구소 연구팀의 연구팀은 지난 4년간 약 10억원의 개발비를 투입, 세계 수준의 분석정밀도(분해능)를 갖는 반도체용 광전자분광(광전자분석) 설비를 개발, 실리콘산질화물막 분석에 성공적으로 응용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이 개발한 설비는 반도체 박막재료의 조성 및 화학적 상태를 측정하는 전자분광설비의 일종이다. 포항공대 ‘포항공속기연구소’의 고휘도 방사광발생장치를 이용, 분석 정밀도와 감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연구팀은 “이를 국내외 연구진과 공동활용, 90나노(nm)급 실리콘 소자에 사용되는 나노 실리콘산질화물막 계면의 화학적 상태와 초기 박막 형성과정을 밝혀내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이미 고체물리학 분야의 최고 권위지인 ‘피지컬리뷰’에 게재돼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종합기술원 나노분석실 송세안 박사는 “기존 장비에 비해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차세대 반도체를 비롯해 전자소재·재료 등 첨단기술에 널리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